

집단 유급으로 이어진 서명 위조사건

“비현실적인 실습량” vs “소극적인 실습 참여”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서울】 치대생은 참관 영역 성적을 받기 위해 일정 회수의 임상실습을 참관해야 한다. 이를 채우면 레지던트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는다. 이를 ‘리콰이어먼트(Requirement)’를 채운다’고 한다. 리콰이어먼트는 임상실습 수업 평가 점수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서명 개수를 말한다.

치대 본과 4학년 학생이 임상실습 확인 서명을 조작해 발생한 집단 유급 사태에 학생들은 비현실적인 실습량과 적은 환자 수, 레지던트와 학생의 친분에 의해 남용되는 서명 개수가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치대 측은 현재 임상실습 수업 제도에 문제가 없으며 학생의 소극적인 실습 참여가 위조 서명 행위의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학생, “병원 환자 수 부족” 치과대, “진료 참관 기회 많아”

본과 4학년 학생의 ‘케이스북 서명 조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치대 성적평가 기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치대 임상실습 수업에는 두 가지 제도가 있다. 하나는 학생이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병원에 출근해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픽스(Fix) 제도’다. 다른 하나는 ‘팔로우업(Follow-up) 제도’인데, 이는 학생이 자신에게 지정된 환자의 모든 진료 과정에 참여해야 성적이 부여된다. 유급사태가 벌어진 본과 4학년에게는 기존엔 픽스제가 시행됐다가 올해부터 팔로우업 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팔로우업 제도는 실습 성적이 오르지 환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단점이라고 학생들은 주장한다. 환자 수가 적고, 불규칙하게 내원한다면 학생 점수에 불리한 영향이 간다고 말한다.

학생들은 최근 우리학교 치과병원 환자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한 학생은 “학생들은 환자를 팔로우업 하기 위해 외래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학생들이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실습 횟수가 환자 수에 비해 비현실적으로 많다고 말한다. 일례로



팔로우업 제도는 실습 성적이 오르지 환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단점이라고 학생들은 주장한다. 환자 수가 적고, 불규칙하게 내원한다면 학생 점수에 불리한 영향이 간다고 말한다. 반면 치대 측은 참관이 충분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조병연 기자)

본과 4학년 수업 ‘구강외과학임상실습’에서는 학생당 80건의 발치 임상 수술 건을 요구했다. 해당 수업 정원은 85명으로, 학생들은 원내에 방문하는 환자로부터 약 6,400건의 발치 수술을 참관, 보조해야 하는 것이다.

본과 4학년 재학 중인 한 학생은 “병원에 방문하는 모든 환자가 발치 환자가 아니다”며 “환자 수가 적은 걸 고려하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불가능한 수치”라고 말했다. 치대에서 작년 공개한 ‘2022 치과대학 연보’에 따르면 2022년 월평균 종합진료실 외래 환자 수는 428명이다.

한 학생은 “반아야 하는 서명 개수가 너무 많아서 줄여달라 요청해도 학교 측에선 ‘너희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애초에 못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는 이에 반박했다. 치대 신승윤(치의학) 교무부학장은 “참관할 수 있는 임상실습 참관 건수를 전수조사했더니, 학생이 충분히 참관할 수 있는 건수”라고 말했다.

치대 정종혁(치의학) 학장은 환자 수에 비해 모든 학생이 임상실습 참관에 따라가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 환자가 100명인데 학생은 30명만 따라다니며 임상실습 참관 건수 부족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정 학장은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는 방학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복수 학생은 “레지던트가 비현실적인 임상실습 참관 건수를 요구하며 유급을 가지고 협박했다”고 증언했다.

“레지던트 친분 따라 성적 차이” 치대, “상황에 맞게 했을 것”

또 학생들은 레지던트가 사적인 친분으로 서명 수를 달리 부여했다고도 주장했다. 한 학생은 “레지던트와 친한 후배는 동일 양의 실습을 진행했어도 많은 서명을 쉽게 받는다”고 주장했다. 다른 학생도 “서명 기준은 레지던트의 자의적 판단”이라며 “레지던트와 친한 후배는 한 건으로 10개의 서명을 받는다”고 말했다.

치대 측은 친분이 아닌 레지던트 판단하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학장은 “학생의 역할이 달랐을 것이고, 레지던트는 상황에 맞춰서 서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대와 학생 모두 우리학교 치대 본과 3, 4학년으로 구성된 학생 대표 ‘총대단’(총 대표단의 준말)의 권력 남용이 부조리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총대단은 학생과 레지던트·교수 사이를 잇는 역할이다. 이들은

학생과 레지던트 간 연락 및 진료 관리, 벌점 부과 권한을 갖고 있다.

이번 사건도 총대단이 레지던트가 서명하는 ‘케이스북’에 손을 대면서 시작됐다. 실제로 총대단 16명 중 대다수가 서명 위조로 유급됐다.

유급 처리를 받은 한 학생은 “총대단은 평소에도 위조를 권유하라는 말을 해왔다”며 “학생이 서명 개수를 채우지 못하면 본인들이 혼나니 그냥 위조했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레지던트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성적을 마음대로 조작해 좋은 점수를 얻어왔다”고 주장했다. 다른 학생도 “일부 학생 내에서 권력을 가진 십여명의 총대단이 서명을 조작했다”고 말했다.

치대 측도 일부 총대단이 서명 위조 분위기를 몰아갔을 것에 동의했다. 정 학장은 “총대단이 서명을 위조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을 수는 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교무부학장은 “제대로 서명이 이뤄져 30%~40%가 기준을 못 채웠다면 기준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바꿀 수도 있었다”며 “위조가 발생해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렸다”고 말했다.

정 학장 또한 “학생이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학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성적 공시 미뤄져 불만

정재환 기자 jacekh@khu.ac.kr

강의평가를 했음에도 시행자 성적 열람 기간에 열람이 불가했던 점을 두고 학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세부 성적이 성적 입력 기간 내에 입력되지 않았던 부분 역시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도 관련 게시물만 40건이 넘을 정도였다.

전준하(골프산업학 2024) 씨는 당시 “빨리 성적을 확인하고 싶어 강의평가를 했음에도 이른 시일 내에 확인할 수 없어 답답했다”며 현재 성적 공시 시스템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국제캠 학사지원팀에 따르면 강의평가를 한 학부생의 경우 성적 공시 및 정정 기간이 시작되기 전 미리 성적을 열람할 수 있다. 강의평가 실시자가 미리 성적을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은 성적 입력 기간과 일치한다. 강의평가 실시자는 성적 입력 기간에 교강사가 성적을 입력하고 마감 처리를 한 즉시 성적 확인이 가능한 것이다.

성적 공시 시스템과 관련해 학사지원팀은 “지난 1학기부터 성적 공시 및 정정 기간 내 마감되지 않은 과목을 매일 오전 강제 마감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교수가 성적을 입력하지 않으면 강제 마감 처리가 불가능하다. 정호윤(체육학 2024) 씨는 “세부 성적을 성적 정정 기간이 끝나서야 입력하는 교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부 성적 입력과 관련해 학사지원팀은 “시스템 보완 및 제도 안내 강화를 통해 성적 공시 및 정정 기간에 원활한 성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우리학교는 지난해 2학기부터 세부 성적을 입력하지 않은 교수를 대상으로 교원업적평가에서 10점을 감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사지원팀은 세부 성적 필수 입력 대상 강좌의 경우, 세부 성적 평가항목을 지정하고 점수입력을 완료해야 성적등록이 마감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기 중에 상시 세부 성적 입력이 가능하고, 세부 성적을 입력해야 성적 등급 마감이 가능함을 교강사에게 안내할 예정이다.